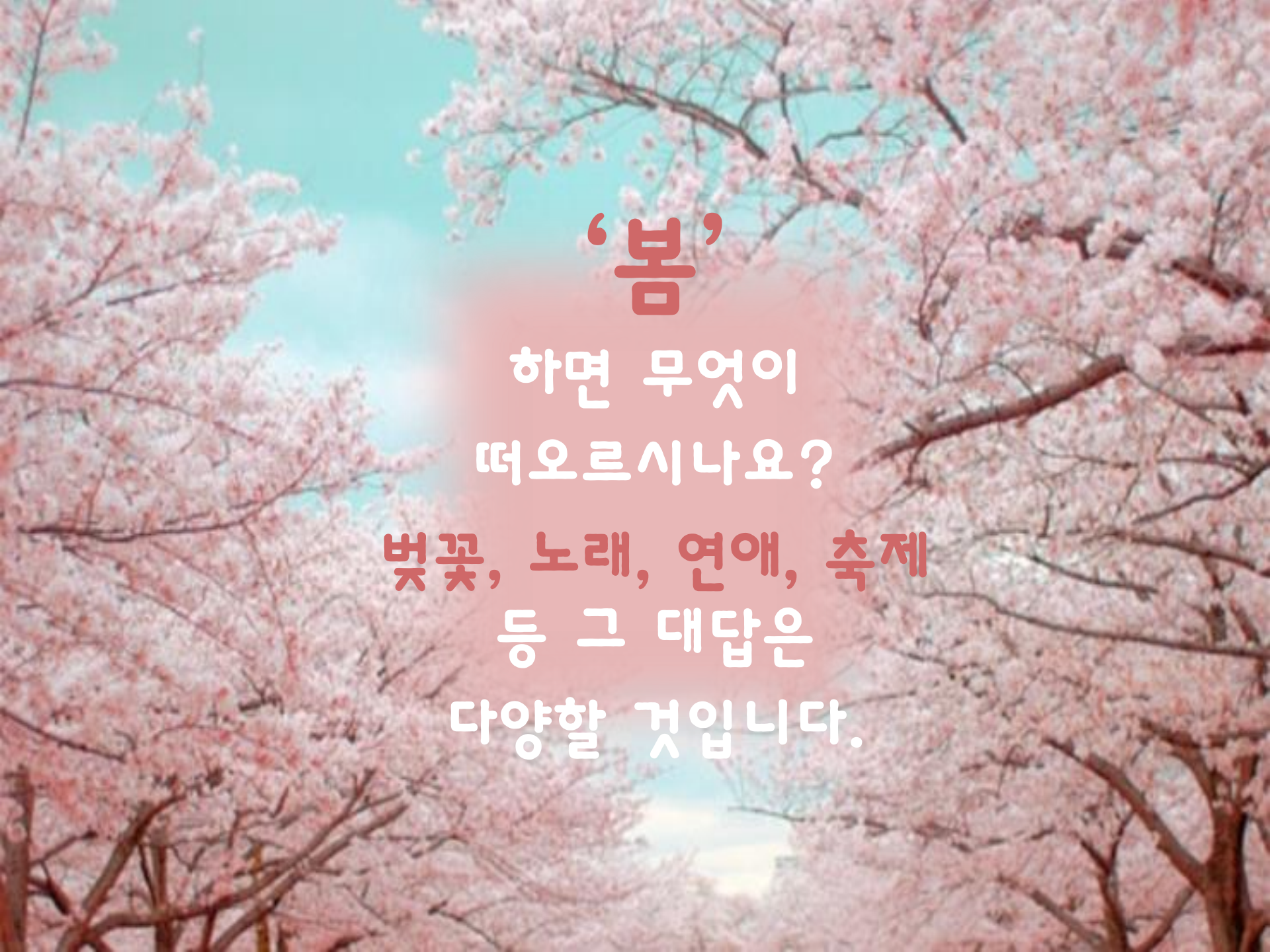


꽃 피는 봄이 오면





‘봄’

하면 무엇이
떠오르시나요?

벚꽃, 노래, 연애, 축제
등 그 대답은
다양할 것입니다.



"'벚꽃엔딩'을 보면서
나도 **시즌송**이 있었
으면 했다"

이러한 우리나라의 **계절**은 많은 음악인들에게
영감을 주기도 하는데요, 그래서인지 **시즌송**을
노리고 음반을 내는 가수들도 상당수입니다.



89 내가 너가

↓ 4 San E



90 혼자, 한잔

↓ 1 허각



91 목요일 밤 (Feat. 빈지노)

↑ 2 어반자카파



92 벚꽃 엔딩

NEW 버스커 버스커



93 Falling For You

↓ 6 EXO



94 LOVE

↑ 1



95 LOVE

↑ 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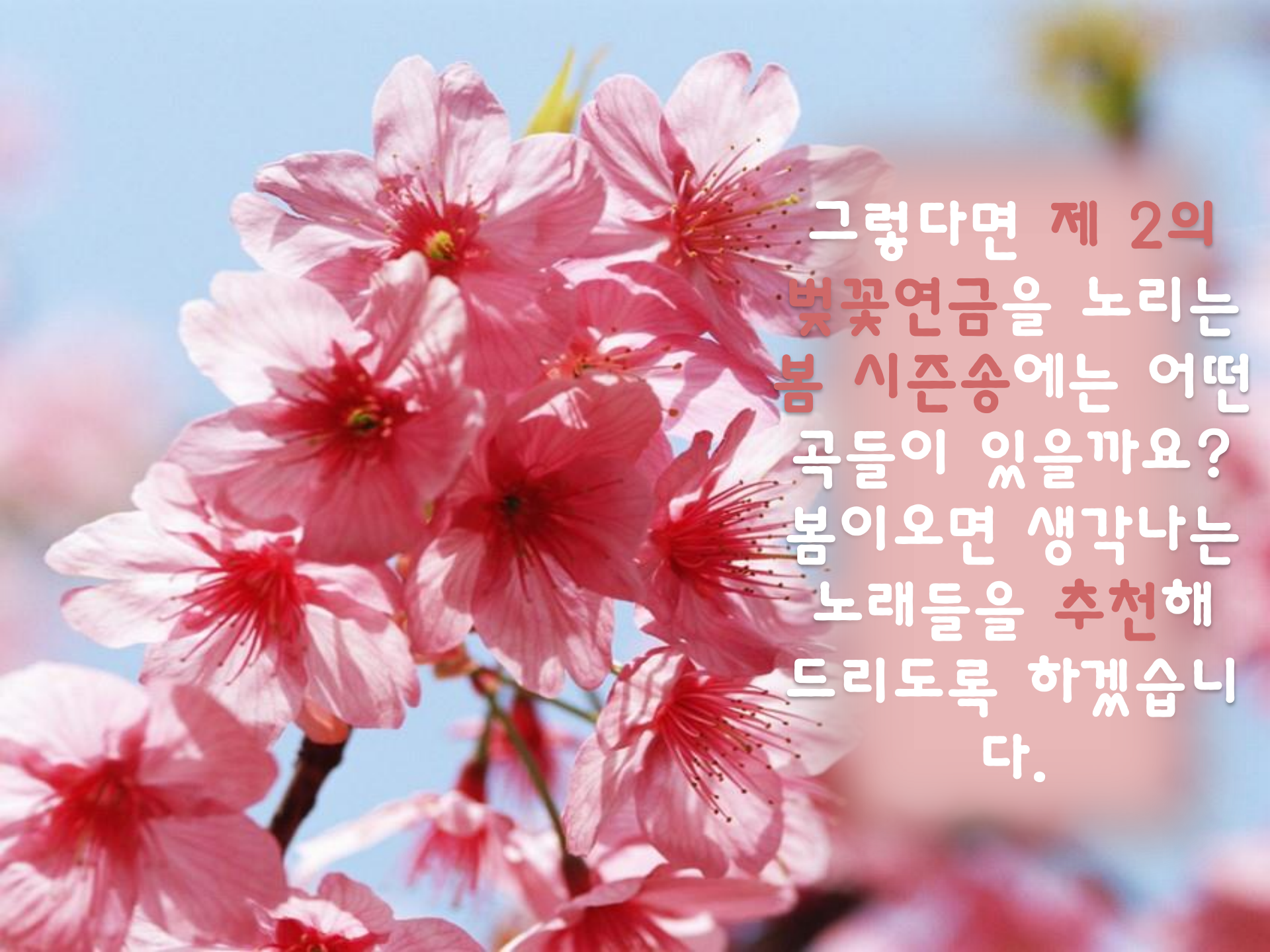
시즌송의 대표주자인
가수 '버스커 버스커'의
타이틀곡 '벚꽃엔딩'은
발매 이후 매년 3월 봄
이 되면 항상 음원차트에
등장하는 기이한 현상이
일어나 '벚꽃연금'이라는
신조어가 탄생하기도
하였습니다.

하루가 다르게 차트 순위가
변하는 가요계에서 한 노래
가 몇 년 동안 주목을 받는
건 흔치 않은 일이기에 가
수들이 계절에 따라 꾸준히
사랑 받을 수 있는 시즌송
제작에 주력하는 것도 이해
가 갑니다.



봄
봄
봄
로이킹



A close-up photograph of several pink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. The petals are a soft pink color, and the centers show prominent red stamens. The background is a clear, bright blue sky, with some blurred blossoms visible in the distance.

그렇다면 제 2의
벚꽃연금을 노리는
봄 시즌송에는 어떤
곡들이 있을까요?
봄이오면 생각나는
노래들을 추천해
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우연히 봄

로꼬 & 유주

- 2015년 방영됐던 드라마 '냄새를 보는 소녀'의 ost
- 피아노 선율 속 유주의 목소리와 로꼬의 랩핑이 더해져 봄의 설렘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평가
- 드라마보다 더 큰 인기

로꼬 + 여자친구 (유주) = 우연히, 봄



봄 사랑 벚꽃 말고 HIGH4&IU

- '벚꽃엔딩'의 뒤를 잇는
봄 캐럴
- 2014년에 발표되어 5년째
봄이오면 꾸준히 차트인
- 아이유와 하이포의 달콤한
목소리가 어우러져 벚꽃
개화 시기에 큰 사랑을
받고 있음



봄이 좋냐??

십센치(10cm)

- 2016년 발매된 '솔로감성' 음악
- 재치 넘치는 가사와 따뜻한 멜로디로 솔로들의 질투 어린 마음을 직설적이고 유쾌하게 풀어냄
- 사랑과 이별 위주 음악들을 누르고 대중에게 인기





어떠신가요?

많이 공감이 되나요?

봄이 돌아오면 여러분의
마음속에 피어나는 그
곡이 바로 **당신의**
시즌송입니다.